

## “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운송”

- 국내 첫 유상 운송 허가… 6월부터 서울-진천 구간 시작으로 전국 서비스 확대
- 운전자 장거리 운전 부담 덜고 물류 효율은 높아… '27년 무인화 단계적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고속·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.
-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\*를 통과한 (주)라이드플러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과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/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.
  - \*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(25.2월)에 따라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자동차안전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진행
  - 또한, 연내 전주, 강릉,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,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'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\*을 시작할 예정이다.
    - \* (1단계) 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→ (2단계) 조수석 탑승 → (3단계) 완전 무인화
-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  - “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월시 (044-201-3847)
		담당자	사무관	조상우 (044-201-3852)
			주무관	김만호 (044-201-4147)

□ **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개요**

- (운행업체) (주)라이드플렉스
- (운행차량) 타다대우 맥센 25톤 트럭 1대(최대속도 90km/h)
- (운행구역) 서울동남권물류단지~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 구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(112km, 중부선)
- (운행시간) 평일 주 3회 20:00 ~ 5:00 (일 9시간)
- (서비스 내용)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**미들마일 일반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**
  - \* 한국도로공사(위탁관리기관)에서 운행안전관리를 위해 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(향후계획) 상반기 내 파트너사(롯데글로벌로지스)와 유상운송 계약 체결 후 서비스 개시 예정, 타지역에도 **화물운송서비스 추진\*** 중
  - \* 전북도(광역운송망 지구), 강원도(강릉 화물운송 지구), 제주도(스마트물류 지구), 대구시 등의 지방정부와도 협력하여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 계획 협의중

□ **운행구역 및 화물 자율차**



<자율차 측면>



<자율차 내부>